제4강 취미판단의 제1계기: 성질의 범주에 따른 고찰 (2)

(1교시)

◆ 취미판단의 무관심성

※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 p.15의 마지막 단락을 본 후 p.16, '**§2. 취미판단을 규정하는 만족은 일체의 관심과 무관하다**'로 들어간다.

▲ 바움가르텐과 칸트의 미(美)에 대한 인식 차이

(1) 바움가르텐

표상 ■■ 모호한 표상: 재인식 불가능

■■ 명석한 표상: 재인식 가능 ■■ 혼란한 표상: 분석불가능

■■ 판명한 표상: 분석가능

바움가르텐은 명석하면서 혼란한 표상을 '감성적 인식'이라고 했다.

=美에 대한 인식

(2) 칸트

칸트는 표상의 종류, 인식능력에 따라 '미에 대한 인식'을 구분하지 않았다.

▶ 참고자료 I

바움가르텐 (Alexander Gottlieb Baumgarten, 1714~1762)

독일 계몽시대 라이프니츠-볼프학파의 철학자

주요저서: 『윤리학』, 『미학』

▲ 취미판단의 성립

취미판단은 상상력과 지성이 상호 유희하고 조화를 이룰 때 성립한다.

상상력 +지성 ----→ 취미판단

: 취미판단은 개념과는 관련이 있지만 '주어진 개념'과는 무관하다. (반성적 판단)

그러므로 그 자체로는 학문적 인식과 관련이 없다.

▲ 무관심성 (무관심한 관심)

(1) 관심

"관심이란 어떤 대상의 현존의 표상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을 말한다. 그러므로 관심과 결합되어 있는 만족은 ...(중략)... 언제나 욕구 능력과 연관된다." p.16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**'관심'**은 ■■ 대상의 현존 (a.)　　■■에서 오는 만족이다.
　　■■ 현존한다고 표상함 (b.) ■■

예) 목마른 사람이 물에 관심이 있다. 진짜 물을 볼 때는 물론(a.), 물을 생각만 하는 것(b.)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.

- 관심은 항상 **욕구**와 관련된다. (즉, 결핍과 관련됨)
  욕구 ■■ 감각적 욕구 --- 예) 목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다.
　　■■ 도덕적 욕구 --- 예) 요즘 애들에게 좀 더 버릇이 있었으면 좋겠다.

- 욕구 능력과 관련되면 미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.

예) 경매에서 비싸게 팔 욕심이 앞서면 미술품의 '아름다움'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.

(2) 무관심성

- 무관심한 판단으로부터 내려진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
  : 그 자체로는 관심(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관심)을 불러일으키는 판단이다.

- **'美에 대한 판단'은 무관심한 관심을 표명하는 판단이다.**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취미판단의 사회성

※ 지난 시간 말미에 언급된 "취미판단은 사회적인 판단"이라는 부분에서 이어진다.

- p.17 무인도에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라면 꾸미고 장식하지 않을 것이다.

- p.193 주5) "...*취미는 사회 속에서만 관심을 유발한다.*"

▲ 취미판단에 사회성을 적용시키는 지점

■■ 취미판단의 성립조건 (어떤 판단이 취미판단이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) ---(a.)
■■ 취미판단의 보편성 (취미판단에 대해 타인이 동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건) ---(b.)

- '취미판단의 사회성'을 말할 때 a.와 b.를 혼동하면 오류가 생긴다.

a.에 사회성을 적용시킬 경우 앞 시간에 살펴본 '취미판단의 무관심성'과 충돌한다.
a.는 인식능력들의 관계에서만 나온다. (취미판단=상상력+지성)
※ 반성적 지평에서 : 상상력 + 지성 = 취미판단
규정적 지평에서 : 상상력 + 지성 = 인식판단

<u>취미판단의 사회성은 b.의 지점에서 적용시켜야 한다.</u>

▲ 공통감의 이념

공통감의 이념: 나의 판단을 타인의 판단과 미리 견주어보는 능력
→ 사회적인 판단

▲ 무관심한 관심

취미판단은 <u>무관심한(a.)</u> <u>관심(b.)</u>에서 나온다.

a. 감각적, 실천적 욕구와 관련된 관심
b. - 美 자체에 대한 관심 (1차적)
- 타자(他者)에 대한 관심 - 사회적 관심, 타인에 대한 관심 (2차적)

※ 이러한 해석은 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다.

※ 쇼펜하우어는 '무관심한 관심'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칸트가 '사회를 등진 상태'에서 미적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판단이 내려진다 했다고 잘못 받아들였다.

▶ 참고자료 Ⅱ

쇼펜하우어 (Arthur Schopenhauer, 1788~1860)

독일의 철학자

주요저서: 『의지와 표상(表象)으로서의 세계』

▲ '무관심한 관심'의 사회철학적 맥락

무관심한 관심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라고 한다면

⇒ 그 사회는 정의(justice)와는 관계없이 타자에 대해서 미적인 관심을 가진, 아름다운 관계가 바탕이 된 사회일 것이다.

: 규모가 큰 공동체에서는 정의롭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 어렵겠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체라면 가능하다.

- 무관심한 관심은 정치철학, 사회철학에 있어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.

▲ 취미판단의 편파성

관심이 포함되면 미에 대한 판단은 편파적이 된다.

선과 윤리의 문제 - 도덕적 공정성/편파성 ---(a.)

미와 사랑의 문제 - 미적 공정성/편파성 ---(b.)

예) 배우자가 죄를 추궁받을 때,

- a.: 도덕적 규범, 자신의 체면 등에 대한 관심이 개입되어 문제를 생각한다.
  (도덕적으로 공정하다.)
- b.: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준다.
  (미적으로 공정하다.)

a.와 b.는 다르다. 이 구분에 페미니즘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